

# ‘향상일구’ 이룰때까지 (하)

(向上一句)

이만덕 (서울 은평구 대조동)

9월 말이 되었을 때 선원에 계신 회장 보살님께서 부산에서 초보자 반이 열린다고 말해 주어서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 인국사에는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날 스님께서 저에게 “이번에도 답을 찾지 못하면 화두 공부를 포기한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두달이나 먼저 화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마 이면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늦게 답을 찾지는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공부는 무미건조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두 의식은 지속되었고 괴로운 기운들도 찾아들었습니다. 또한 몸도 가벼워져서 식사량만 늘어났습니다. 밤잠하지 않고도 잠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심자 반이 중반으로 넘어갈 즈음 뉴질랜드에서 온 보살님은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였는데, 한참을 통곡한 후에는 혼절해서 벽에 기대어 있다가 다시 통곡을 하곤 쓰러졌습니다. 2일간의 공양도 거의 하지 못했고 공양하러 가셔도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점검을 받기 위해 스님께 삼배를 드리는 데 그 보살님처럼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예를 올리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밤에 잠깐씩 와서 공부한 거사님도 모두 점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향아리에 자라 한 마리가 있는데 무럭무럭 자라던 어느 순간에 향아리가 깨질 것이니 그때까지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다시 초보자 반이 열려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6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초보자 반도 소득 없이 지나갔습니다. 스님께서 “행이 빠리 돌면 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져보면 엄청나게 빨리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도록 풀무질을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듣고 있었던 화두 의식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칠었던 화두 의식이 순일해지고 흐름도 아주 커져서 이제 어느 쪽을 향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작용만 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초보자 반이 끝날 무렵 저는 선원 사무실에 이야기 하고 또 밤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인원이 적어 선원에서 하지는 못하고 인국동에 있는 스님 처소로 장소를 옮겨 밤샘을 하였습니다.

## 화두·경전공부·선지식의 가르침 간절하니

## 야생마 길들이듯 날뛰는 기운 다스리는 힘 생겨

그러던 중 지장재일 법회날 회장 보살님이 저를 보더니 “이젠 작은 문제들은 일상 생활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후에 스님 처소로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무업 거사를 불렀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어디서 경전 공부를 했는지를 물어 보셨고 이후에 꾸준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사법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를 다시 읽었는데, 책의 구절 중에서 ‘동정일여’ ‘화두’ ‘의심명어리’라는 낱말의 뜻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두 참구하기 전에는 없었으나 화두 참구 과정에서 생긴 맑고 차분하며 신령스러운 기운들이 ‘화두 의심명어리’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두 의식이 동정일여, 몽정일여, 오매일여의 경지를

넘어 온산벽벽을 투과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화두의심이 들리면서 선지식들의 법문을 듣는 귀가 열려, 체험을 바탕으로 법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비록 화두의심이 성성하게 들렸지만 잠만 자면 화두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두 의심이 꿈속에서도 들릴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폭죽이 터지듯이 흰색 기운들이 온 몸을 휘감고 돌아다니면서 빛을 내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몇 차례 왔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

원 상담관에 글을 올리자 ‘화두 공부중에 나타나는 좋은 현상의 하나이나 그것에 매달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치지 않고 뒤론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선원장 초청법회를 통해 저는 제 공부에 어느 단계에 왔는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붓다뉴스, 흥화선원, 해운정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선지식들의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수행법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화선 수행법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맑고 차분하며 신령스러운 기운 속에

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되자 웬만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마음이 외부로 뿔뿔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사 뿔뿔이 나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절과 경전공부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먼저 긴 고삐를 만들어 나무 말뚝에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질이 순해집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안장을 엮고 말 등에 올라타서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또한 멀리까지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참선도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사람의 심성도 거칠고 날뛰는 기운 역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결이 찾아들어야 물속의 달을 볼 수 있듯이 이런 날뛰는 기운들이 어느 정도 잦아들어야만 비로소 내 안의 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조사 스님들이 왜 ‘이 뭇고’ ‘무’ ‘물 앞의 잣나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조사 스님들이 왜 저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되면서 마음공부의 씨앗을 스스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선지식이란 비를 만나면서 비로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화두 공부 경험을 통해 지식과 생각의 양만큼 번뇌 망상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화두 참구 중에 제가 제 껍데 속아서 귀신굴에서 허우적거리는 때, 저 스스로는 그런 사실을 도저히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약 석달간만에 걸쳐 화두 참구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던 스님께 물어보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무리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스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공부는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결국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법이 얼마나 심오한지 알아야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을 알아야 부처님, 조사스님,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형성된 믿음은 화두 공부 중에 부딪히는 경계들을 헤치고 나갈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화두공부는 불교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끝)



그림 · 문병성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에게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들에게는 더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 (납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 구성: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도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판매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실용용 맴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 (직), 2004-8219 (현대불교 영업1팀)



- 제품사양
- 출력: 100W+100W 소비전력: 350W
- 입력전압: AC 220V 전율 50/60Hz
- 사이즈: 64.5(가로) x 67(세로) x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역음역 제동음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앞당김! 고객만족도·판매를 선두주자 달성!